우리의 경쟁 상대는 MS오피스, 기술독립 첨병 되겠다

토종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대표기업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MS오피스에 맞서 '씽크프리 오피스(Thinkfree Office) 3.0'을 선보였다. 한국의 기술독립을 실현하고 있는 한컴 백종진 대표에게서 기술 개발의 소감과 포부를 듣는다.

Q... 오피스 프로그램의 국산화는 의미가 크다. 씽크프리 오피스의 기술적 특징이 궁금한데?

A... 미국에서 더 잘 알려져 있는 씽크프리 오피스는 자바 기반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 '라이트', 프레젠테이션용 소프트웨어 '쇼', 수식계산용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칼크'로 구성돼 있고 윈도우에서만 구동되는 MS오피스와 달리 윈도우, 리눅스, 매킨토시 등 어떤 운영 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MS오피스 파일과 호환이 가능해 MS오피스가 없어도 열어볼 수 있고 MP3플레이어나 휴대전화, PDA 등 휴대용 디바이스에 탑재하기도 쉽다.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을 당시 씽크프리 오피스는 여러 전문 잡지와 콘퍼런스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됐고, MS사의 스티브 발머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언급했을 정도로 주목받았다.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2400만달러 투자까지 받았지만 임대방식(ASP)을 선택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한컴에 인수돼 3년 만에 다시 새 버전으로 등장한 것이다.

Q...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항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A... 이전에도 MS오피스에 대항하는 제품들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MS오피스 문서들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기존 시장을 90% 가까이 지배하고 있는 거대 경쟁자와 맞서려면 그와 호환되는 제품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씽크프리 오피스 3.0은 이전 버전보다 호환성에 역점을 두었다. 매킨토시와 리눅스 등 MS오피스가 주력하지 않았던 운영체제를 공략한 것도 전략 중 하나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지속적으로 기술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달라.

A... 씽크프리 오피스를 비롯해 한컴의 제품들은 토종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경쟁자로 나서야 MS오피스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시장을 키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한국 출시에 이어 일본과 중국에도 진출할 계획이고 7월에는 미국과 유럽시장에 패키지 버전을 내놓으려고 한다. 한컴은 씽크프리 오피스 3.0 출시를 계기로 3년 안에 매출액 2천억원에 순이익 600억원을 올려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등극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신을 만회할 각오로 뛸 것이다. 한·중·일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시아눅스'가 완료되면 한컴은 워드프로세서, 오피스, OS를 아우르는 토종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기술독립의 첨병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 것이다.